전효성, 귀신으로 연기데뷔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제2919호 www.metroseoul.co.kr

이승훈 "남자 자존심 수성"

"5살 대성이가 환갑이 넘었어"

아디오스 퀸연아 덕분에 행복했어

여왕의 마지막 외출이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김연아가 21일 새벽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끝으로 19년 피겨 인생을 마무리했다. 여섯 살 때 처음 빙판에 선 김연아는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왔다. 아래는 유치원 시절인 1996년 10월 피겨 대회에서 입상한 뒤 상장과 메달을 목에 건 모습(왼쪽), 2005년 11월 한국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파이널에서 우승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가운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프리스케이팅 경기 결과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남측 아버지 김영환씨 "미안하다"…납북어부 2명도 가족만나
이산가족 3년4개월 만에 상봉 행사…내일까지 '꿈 같은 2박3일'

"형님,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양곤(52)씨가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설 계기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 형 양수(58)씨와 눈물의 만남을 가졌다.

양수씨는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던 쌍끌이 어선 오대양 61·62호 선원 25명 중 한 명으로, 생사조차 몰라 애태웠던 형을 41년 만에 마주한 양곤씨는 기쁨과 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되뇌었다.

양곤씨는 형에게 남쪽 소식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큰형의 묘소 사진, 가족 사진, 고향마을 풍경 사진을 챙겼고 내복 등 의류와 생활필수품을 선물했다.

최선득(71)씨는 1974년 2월15일 백령도 인근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된 동생 영철(61)씨와 상봉했다.

정부에 의해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북한의 최종석(93)씨와 최흥식(87)씨도 이번 상봉 대상에 포함됐으나 모두 사망해 각각 남쪽의 딸 최남순(65)씨와 아들 최병관(68)씨가 북쪽의 이복형제와 만나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전해들었다.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진 김영환(90) 할아버지는 북녘에 두고 온 아내 김명옥(87)씨와 아들 대성(65)씨를 만났다. 이번 상봉단에서 배우자를 만난 것은 김 할아버지가 유일했다.

김 할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을 피해 혼자 남쪽으로 잠시 내려와 있다가 가족과 헤어졌다. 당시 아들 대성씨는 다섯살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남쪽에서 결혼해 4남1녀를 뒀다.

60대 노인이 된 아들을 마주한 김 할아버지는 밀려드는 회한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상봉에 동행한 아들 세진(57)씨는 "아버지는 북쪽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오셨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눈물의 재회 남측 상봉단의 이선향(왼쪽) 할머니가 북측의 남동생 윤근씨를 만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성윤(96) 할머니는 여동생 석려(81)씨를 만났고, 감기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 응급차를 타고 금강산까지 이동한 김섬경(91) 할아버지는 딸 춘순(68)씨, 아들 진천(65)씨와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3년4개월 만에 진행된 이날 상봉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12명이 부부·자식을, 47명이 형제·자매를, 23명이 3촌 이상 친지를 각각 만났다.

남측 상봉단은 2시간에 걸친 단체 상봉에 이어 이날 저녁 북측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해 만남의 기쁨을 이어간 뒤 첫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대리점·가맹점 상대 갑질 발본색원"

박 대통령 "6개월마다 실태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 등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도덕적"이라며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하고, 공정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아내 배 속 있던 아들, 60대 노인 돼 재회

이산가족 상봉 이모저모

폭설 탓 행사 다소 지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일 3년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동해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봉단을 태운 차량은 20일 오전 10시50분 남측 출입사무소를 출발해 오후 1시께야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했다. 평상시 같으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동안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 평소의 두 배나 시간이 걸렸다. 상봉이 시작된 이날도 낮 12시30분께부터 함박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의 상봉장과 숙소인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몰수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인지 건물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다.

남측 기자 노트북 검색 소동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북측 관계자들의 까다로운 수속 절차에 애를 먹었다.

남측 출입사무소에서는 출경 절차가 일사불란하게 끝났지만 북측에서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 1시간 정도가 걸렸다. 특히 북측 세관원들은 남측 기자들의 노트북을 강제로 검색해 일부 기자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거동이 불편해 구급차에 실려 금강산에 들어간 김섬경(91) 할아버지와 홍신자(83) 할머니는 북측이 남북 간에 사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봉 비공개를 요구해 남측이 이를 수용했다.

북측 아내는 이미 세상 떠나

○…강능환(93) 할아버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났다.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된 아내와 1·4 후퇴 때 헤어진 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60여 년을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생사 확인을 거치면서 북한에 남긴 아내의 배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북쪽의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북측 돼지구제역 발생

○…북한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이산가족 상봉단에도 경계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금강산에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소독, 방역 교육 등 검역조치를 실시했다"며 "귀환 시에도 검역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출입자와 물품에 대한 소독·검색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팔팔했던 자매가… 20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성윤(오른쪽) 할머니가 동생 석려씨를 만나 서로 얼싸안은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제한구역' 알고 가시나요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한국인 수난 시대다. 지난 16일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떠난 한국인 3명이 피살당한 데 이어 18일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괴한의 습격으로 숨졌다. 연이은 불운의 그림자가 한국인에게만 우연히 드리워진 걸까.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무슬림 단체의 자살폭탄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 세계 관광객과 종교인은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행의 경우 좀 더 신중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관광객은 위험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철저하게 사전 정보를 파악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여행금지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관련 지역 상황을 전하고 주의를 당부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순례 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 정부는 최근 테러가 발생한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여행제한구역으로 설정했지만 피해를 입은 교회 신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내 언론에 밝혔다.

물론 정부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행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강제 규정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국민 개개인도 여행 제한·금지 구역 출입은 자제해야 한다. 국가와 개인의 적극적 대응으로 한국인 수난 시대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쩍쩍' 소리에 지붕 쳐다본 순간 '와르르'

경찰이 20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담긴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체육관 붕괴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13초 분량으로, 이후엔 실내 조명이 꺼져 화면이 컴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비명 소리만 들린다.

이 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이벤트 업체 직원이 체육관 중앙 부분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신입생 환영회 무대 상황 전반을 찍은 것이다. 테이프에는 1시간 정도 녹화돼 있다.

영상 초반에는 '커플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오후 9시5분께 무대 뒤편 쪽 지붕에서 '쩍쩍'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회자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붕의 왼쪽과 오른쪽이 'V'자 형태로 동시에 붕괴된다.

문상객 하나 없는 빈소 20일 부산 남구의 강안병원에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숨진 이벤트회사 직원 최정운씨의 빈소를 베트남인 아내 레티키에 우오안씨가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순간 학생들은 무대 맞은편 쪽 출입문과 오른쪽 벽면에 난 또 다른 출입문 등을 향해 흩어지고 13초 만에 학생들 비명 소리만 들린다.

경찰은 "사고 50분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학생들은 평온한 상태로 환영회를 즐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영상은 비공개할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문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20일 북한 방문을 마친 뒤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류 부부장은 북측 고위 인사와 만나 북·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에 대해 조율했을 가능성도 크다.

류 부부장이 만난 북한 측 인사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김형준 부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리철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류 부부장은 방한 기간 한·중 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에 관해 협의한다. /조현정기자

문대성 복당 축하하는 안철수 논문 표절 논란으로 탈당했던 무소속 문대성(오른쪽)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이 사실상 확정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승차 거부 3번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나 합승, 부당 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어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승차 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참에 전세탈출"…90%가 실수요자

부동산 법원경매 르포

빈자리 찾기 힘들고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기도…선불리 뛰어들면 보증금 떼일 우려

"사건번호 2013_16***,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 아파트 최고 입찰가는 3억8177만7000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0계 입찰 법정. 이날 2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의 낙찰자가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감정가 3억7300만원의 이 아파트는 1회 유찰돼 최저가가 2억984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입찰자들은 3억2000만~3억3000만원대에 낙찰가를 적어냈다. 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입찰자를 이기지는 못했다.

사실 이 같은 입찰 열기는 경매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고됐다. 법정 안에 마련된 154석 규모의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들어찼고, 자리를 잡지 못해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20여 명에 달했다. 참가자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일명 '꾼'이라 불리는 업자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정 안이 꽉 차는 일이 없었다"며 "최근 10명 중 9명이 일반인일 정도로 개인 참가자들이 늘면서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경매장 안도 많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64.8%로 가장 높은 경기지역 평균 입찰 참여자 수가 2월 현재 9.8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실수도 잦아지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도 2명이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고, 1명은 3억원을 3000만원으로 기재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또 1명은 경매가 취소된 물건에 입찰했다.

경매장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게시판,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진행 여부, 권리관계 변동 등을 확인하고 경매 시작 전에는 집행관이 읽어주는 주의 사항을 들어야 한다"며 "이런 확인 절차 없이 묻지마 입찰에 나섰다가 입찰 보증금을 떼이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경매물건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접근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묻지마 입찰에 앞서 경매장 분위기를 익히고 물건에 대해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간호사관학교 함박웃음 속 졸업식 20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연병장에서 열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도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빅4 교복값' 전국 8곳 일치

담합 의혹…평균가격도 교육부 상한가보다 5만원 비싸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4대 교복 브랜드 업체의 가격이 똑같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교육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4대 브랜드 업체 교복 가격을 긴급 조사한 결과, 동복 기준 개별 구매의 평균 가격은 25만7055원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복 상한 기준인 20만3084원보다 5만원 이상 높았다.

교육부는 4대 업체가 일선 학교의 공동 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개별 구매를 유도해 개별 구입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충남 천안·아산·당진시, 전남 순천·여수시 등 8개 지역은 지역 내에서 4대 업체의 교복 가격이 똑같았다.

또 대구 수성구, 광주 서구, 대전 서·동구,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은 4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가격이 동일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진행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면 교복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국·공립학교에 이 같은 학교 주관 구매를 강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학교의 교복이면 안감 역시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여군도 탱크 몰고 박격포 쏜다

포병·기갑병과에도 배치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앞으로 여군도 탱크를 몰거나 박격포를 메고 훈련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육군의 전투병과인 포병, 기갑, 방공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 배치를 허용하고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처음으로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병대도 포병과 기갑 병과의 장교 정원 규모와 근무 여건을 고려해 조만간 여군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내 교회와 성당, 법당에서 복무하는 군종병과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이 모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의 특전(UDT), 특수정보(UDU), 잠수(SSU), 통신정보 등 4개 직렬과 공군의 항공구조 1개 직렬을 제외한 모든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근무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종, 포병, 방공 병과는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기갑 병과는 근무환경을 고려해 다른 병과 여군 장교를 우선 시험 배치하고 나서 앞으로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여생도 20명을 처음으로 모집한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여군 장교는 전체 병력의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댓글제보 국정원 직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당과 언론에 누설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 운행 정보와 주소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그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점을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판결문을 읽은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그 물이 그 물일까? 20일 열린 '건강한 수돗물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물 맛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공공요양원 비율 2020년까지 50%로↑

서울시가 현재 전체 요양시설 중 40%에 불과한 공공요양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3404곳인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182곳으로 늘려 수용률을 62%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시내 요양시설의 이용 정원은 1만2605명이지만 수요자는 2만213명이나 된다.

시는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현재 28곳에서 2020년 100곳까지 늘린다. 경증 치매환자의 약물 복용을 점검하고 가족들의 대응법을 알려주는 재가방문간호서비스도 4개 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70~75세를 대상으로 집중 치매검진을 추진해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영양 ㄷ관리법과 운동 요령을 보급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철학자 스피노자 사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1677년 2월 21일, 긍정과 자유의 철학으로 '철학자들의 그리스도'라 불린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가 45세로 사망했다. 암스테르담에서 유태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유태교단의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으나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받아들여 유태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암살 위협까지 받았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정교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말년까지 연구와 집필에만 몰두했다.

“우리 메주로 장 담그는 날” 20일 서울 서초구 대원농장에서 열린 '홀로 어르신·소년소녀가장 된장 담가주기' 행사에서 서초구 직원부인자원봉사회 회원들이 메주를 꼼꼼이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 구역 148곳 해제

뉴타운 16곳 포함… 추진 주체 없는 120곳도 곧 일몰제 적용 예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이 해산화정됐다.

뉴타운지구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의 48개 구역 중에서 천호·성내(천호 2, 성내 2·4, 천호 1·2·3·7·9 구역), 미아(강북 1, 강북 8, 신월곡 3, 신길음 2, 신길음 3 구역), 방화(방화 4·7·8 구역) 등 3개 지구의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고, 나머지 16개 지구의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35개 뉴타운지구 중 창신·숭인 뉴타운은 지난해 전체 지구가 해제됐고, 이후 남은 34개 뉴타운지구 중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체 사업장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구역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영준 '원전 수뢰' 700만원만 유죄

원전 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정기자

실전같은 훈련 20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부대 지휘검열이 열려 기동대원들이 과격 불법 시위 상황을 가정해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구로공단 터 뺏긴 농민에 국가배상하라”

사상 최대 1100억원 될 듯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11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만여 원을 배상하고, 이자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더하면 국가 배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과 유족들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농지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이 나서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30만 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농민들을 쫓아냈다. 이에 농민들은 소송을 냈으나 1970년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취하했다. /조현정기자

이집트 테러피해자 전원귀국

이집트 성지순례 도중 폭탄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들이 20일 모두 귀국했다.

신도 13명은 전날 오후 이집트 카이로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상이 경미한 신도 2명은 오후 1시45분께 베이징을 거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도착했다.

오전 귀국한 신도들은 대부분 다리에 폭탄 파편이 박혀있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이들로, 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1명씩 차례대로 게이트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다수는 다리에 깁스하거나 얼굴과 팔 등에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김민준기자

장충동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울시 중구 장충동은 사용 빈도가 낮아 구입하기 어려웠던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입 세대 및 장충동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다.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생활공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3일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독서동아리 활동비용 지원

서울시 관악구는 지역의 독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은 관내 독서모임의 자발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독서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폭설피해 복구 봉사

서울시 마포구는 지난 19일 최근 기록적인 폭설을 기록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적석리를 찾아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역자율방재단과 마포구 직원 16명은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설장비 투입이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지역의 이면도로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웠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metro Brazil

ário de verão
iina no domingo

브라질 서머타임 끝나 전력대란 우려

브라질 서머타임의 종료로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그동안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브라질 정부는 서머타임이 종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브라질 전력 시스템부에 따르면 서머타임제가 시작된 이래로 피크타임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 총 50억 헤알(약 2조2000억 원)이 절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metro France

A Lille, les épiceries solidaires ont la cote

대학생은 최고 20% 깎아주는 식료품점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착한 식료품점'이 인기다. 이곳에선 학생들에게 기존 가격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을 제공한다. 식료품점을 세운 협회 관계자는 "생활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 매일 2~8유로(약 1만1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동시에 매상 중 일부를 대학 구내식당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상 하나뿐인 람보르기니

폭 1m·높이 50㎝ 불과하지만 시속 60㎞ '씽씽'…中농민, 손자 위해 88만원 들여 제작

중국 허난성 저우커우시에서 농사를 짓다 현재는 정저우시에서 손자를 돌보는 50대 궈(郭)씨는 손자 사랑이 각별하다. 최근 그는 손자가 타고 놀 수 있도록 집에서 손수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다.

차 길이와 넓이는 각각 2m, 1m 정도이고 높이는 50㎝가 조금 넘는다. 성인의 무릎 높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궈씨는 스스로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는 기계의 원리에 대해 정통하다. 이 차는 그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본떠서 디자인한 것이다. 철판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또 인터넷에서 람보르기니 엠블럼을 구입해 부착하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차 번호인 8888로 번호판을 달았다. 중국에서 8은 행운의 숫자다. 8의 발음 '파'가 재산을 모은다는 뜻을 가진 파차이(發財)의 파(發)와 발음이 같아서다.

수제 람보르기니는 전동차 부품을 긁어모아 만들었지만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 차내 음향설비도 제법 '빵빵'하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궈씨는 시운전을 선보였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언덕 운행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궈씨는 "제작 비용은 5000위안(약 88만원)정도 들었고 만드는 데 7개월이 걸렸다"면서 "요즘엔 차를 동네에서 몰고 다니면서 길들이는 중이다. 나중에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미니 람보르기니의 도로 주행은 쉽지 않을 듯하다. 정저우시 경찰은 "정식 업체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아니면 시내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차량은 관련 기술 규격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국가 안전검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법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Sweden

tappade mi
des ensam

아들 버릇 고치려 숲 방치한 아버지 100만원 배상명령

"단순히 겁을 줘 실수를 되돌아보게 하려 했을 뿐이다."

벌을 주기 위해 8세 아들을 숲에 홀로 남겨둔 아버지가 불법 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어린 아들을 숲에 남겨두고는 여우와 곰한테 잡아먹힐 수 있다는 말로 아들의 공포심을 증폭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 트렐레보리에 사는 38세의 이 남성은 모자를 잃어버리고 남매에게 심술궂게 행동한 아들을 꾸짖기 위해 이 같은 벌을 내렸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 어린 자식을 숲 속에 홀로 남겨두고 사라졌다.

야생 동물이 두려웠던 이 아이는 수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울고 있었다. 그를 발견한 건 한 여성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몸을 숨겨 아이를 시야에 두고 지켜보고 있으려 했으나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다급해진 그는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위스터드 지방법원은 1심에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짓일지라도 불법 협박으로 볼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그의 행동은 불법 협박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아들을 혼쭐내 버릇을 고치고자 했던 아버지에게 보호감찰 처분과 함께 자신의 아들에게 6000크로나(약 100만원)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에벨리나 올손 기자

정리=김동재 인턴기자

market index <20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1930.57	(−12.36)
코스닥	525.69	(−4.18)
금리(국고채 3년)	2.8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75.30	(+10.30)

뉴스&뉴스

금융서비스 신뢰도 낮다

●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1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소비자(500명)와 금융전문가(103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신뢰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일반 소비자는 16.0%에 불과했다. '매우 부정적'(13.6%) 등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0%로,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김민지기자

OECD 회원국 성장세 둔화

●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개 회원국들의 2013년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진 1.3%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2분기·3분기와 같았다. 미국은 지난 4분기에 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이 0.7%로 뒤를 이었고 일본은 0.3%였다. 독일은 3분기 0.3%에서 4분기 0.4%로 소폭 오르고, 프랑스는 전분기의 제로 성장(0%)에서 4분기 0.3%로 뛰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성장률은 3분기 0.1%에서 4분기 0.3%로 다소 개선됐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속 빈 아베노믹스…日 19개월째 무역적자

'무역 대국' 일본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엔저정책 중심의 '아베 노믹스'가 역풍을 맞으며 19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굴욕을 당했다.

일본 재무성은 1월 무역수지가 2조7900억 엔(약 2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 2조5000억 엔을 상회한 것이다.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증가한 5조2529억 엔에 그친 반면 수입은 25%가 늘어난 8조429억 엔을 기록했다. 엔저로 인한 화력발전 연료 수입액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은 1월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최장인 19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이국명기자

축구팬 열광할 '커브드 UHD TV'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
4배 더 선명한 화면에
하이라이트 포착하는
사커모드 기능 등 자랑
"9년 연속 세계1위 자신"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 사옥에서 '2014년형 신제품 TV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다양한 커브드 UHD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손진영기자 son@

"커브드 초고화질(UHD) TV를 앞세워 세계 TV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겠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20일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2014년형 신제품 TV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훌륭한 실적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전략 제품인 78·65·55형 커브드 UHD TV와 세계 최대 105형 커브드 UHD TV 등을 선보이며 삼성 커브드 UHD TV만의 압도적인 몰입감을 고객들의 안방에 선사하고 TV 화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110·85·65·55·50형 등 평면 UHD TV 제품군도 대폭 늘려 'UHD TV=삼성'이라는 공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삼성 커브드 UHD TV는 기존 풀HD TV보다 4배 많은 800만 화소를 한 화면에 담아내며 소비자들에게 선명한 화질과 편안한 시청감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UHD TV 대비 커브드 UHD TV 화면은 시야 영역을 한층 넓혀 실제보다 화면이 더 커 보이는 '파노라마 효과'를 선사하고 동시에 여러 명이 TV를 볼 때 측면에 앉은 사람도 평면 TV보다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김 부사장은 "삼성 커브드 UHD TV는 세계 최고인 4200R(반지름이 4200㎜인 원의 휜 정도)의 곡률로 TV 평균 시청 거리에서 최적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안경이 없어도 3D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6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축제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삼성 스마트TV만의 '사커모드'도 공개했다.

사커모드는 생생하고 세밀한 잔디의 색감과 함께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멀티 서라운드 음향을 제공한다. 축구 경기 시청 중 아나운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전광판 숫자가 바뀌면 TV가 스스로 이를 감지해 하이라이트 장면을 포착해준다.

이를 위해 삼성 커브드 TV는 '쿼드코어 플러스 프로세서'를 장착해 이전 세대보다 두 배 빠른 다중 작업(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공개된 커브드 UHD TV는 기존 UHD TV 대비 20%가량 가격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김 부사장은 "제품들이 다음달 중순께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격은 협의 중이다"며 "다만 일반 UHD TV와의 편차는 20% 범위 안에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한우 인증마크 단 불고기버거
롯데리아가 20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인증마크가 들어간 '한우불고기 주니어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웃게하는 '지주사 전환'

코스맥스·네이버 등 쑥쑥

주식시장에서 지주사 전환을 시행했거나 앞둔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다. 알짜 사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한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코스맥스는 다음달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지난 12일 6만6500원의 종가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올 들어 11% 넘게 상승한 것이다.

코스맥스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후 재상장되기 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실적이 좋은 화장품 사업부인 코스맥스가 떼어져 나가고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지주사 밑으로 들어간다.

한솔그룹주들도 지주사 전환설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한솔CSN과 한솔제지는 지난 12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분할 상장된 네이버는 지주사 전환 효과를 본 대표적 경우다.

NHN에서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쪼개진 뒤 네이버의 주가는 지난 17일 76만7000원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분할 전 29만3500원에서 분할 후 거래 첫날 48만원을 기록한 뒤 60%가량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전환이 일반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영업정지 카드 3사 손실액 1000억 추정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카드사 3곳의 추정 손실액이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5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 손실액이 44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등의 영업수익을 합친 액수다.

롯데카드는 이 기간 289억5000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액의 1.82% 규모다.

NH농협카드도 조만간 손실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들의 손실 추정액은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합친 735억2000만원에서 추후 농협카드까지 합해 최소 1000억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현정기자

‘현장’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금융정책 답답

issue&view
금융권에 ‘탁상공론’ 폭탄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금융위 “TM 영업정지”…금감원 “보험 25회차 유지율 85%” 지시 황당

최근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 환경과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정지 지시건은 애초에 안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후속 대책을 논하던 중 지나가듯 나온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금융위원장이 그럼 영업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됐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고도 문제였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없다면 이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들끓자 금융위는 금융사들에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고 나아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업계 영업 구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금감원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장이 내놓은 영업 정책이 업계 현황을 조금만 알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의 계약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25회차 유지율 85%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통 유지율이 가장 우수한 보험사들도 13회차 즉 1년 동안 85%의 계약을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이 같은 유지율을 2년 넘게 요구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리라고 하자 금감원 측은 그러면 불량 계약을 받지 않으면 되니 유지율이 나쁜 계약자는 초반에 걸러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영업으로 먹고사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는 이도저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시였다.

비단 카드나 보험사들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힘들어하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는 규제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금융업종인데 감독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없다며 울상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이고 금융사를 건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저변에는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 한 달새 8% 감소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10만1605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3%, 전월에 견줘서는 8.3%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보다 12.3% 줄어든 6만3407건, 지방이 0.7% 줄어든 3만8198건이 거래됐다. 이 기간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9.4% 빠져 3만1369건으로 집계됐고, 강남 3구가 특히 11.8%나 감소하며 6128건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만7528건으로 전달보다 14.5%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반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4023건으로 3.4% 소폭 줄었다.

또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가 5만4189건, 월세가 4만7416건으로 각각 53.3%와 46.7%를 차지했다. 전월 전세와 월세 비율이 59.7%와 40.3%였던 것에 견줘 한 달 사이 월세 계약이 6.4%포인트나 증가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요 단지의 순수 전세 실거래가(계약일자 기준)는 크게 상승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거실에서 “말달리자!”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에서 한 참가 업체가 실내용 승마 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러그만 뽑아도 가계부 ‘호호’

짠순이 주부 경제학

전기료 줄이는 생활습관 형광램프 일자형 효율적

매달 꼬박꼬박 지출하는 전기료.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지나친다. 이제부터는 전기료 한 푼도 꼼꼼하게 따져보자!

전기를 절약하려면 당장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안 쓰는 전등은 끄고, 전기 제품 플러그는 뽑아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낮에는 창가의 자연빛을 최대한 이용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등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전체 가정의 에너지 중 10%가, 소비전력 중 6%가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 대기전력은▲절전형 멀티탭으로 바꾸기 ▲자기 전에 멀티탭 끄기 ▲보이는 곳에 멀티탭 두기 등의 방법으로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형광등도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이왕이면 더 밝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형광등을 쓰면 전기가 절약된다. 형광 램프는 둥근형보단 일자형 램프가 효율이나 수명 면에서 유리하다.

밝기의 경우, 2000시간 이후 일자형은 90% 정도지만 둥근형은 75% 이상으로 쉽게 어두워진다. 요즘은 일자형도 작고 예쁜 모양의 등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때가 아니면 일자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반사갓은 등기구 전체 광 효율을 90%까지 향상시킨다. 고조도 반사갓을 이용하면 반사갓이 없는 제품의 절반으로도 원하는 조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지 커버나 격자형 커버는 빛을 분산시켜 광 손실이 50% 이상 발생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중기 세무조사 비율 축소

국세청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 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글로벌 IT업계 'M&A 광풍'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 17조원 들여 와츠앱 인수
애플, 테슬라와 손잡는중
특허·기술장벽 뛰어 넘는 알짜기업 인수 전쟁터서 한국 기업들 구경꾼 신세

'자체 개발이 힘들면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를 아예 사버려라.'

최근 전 세계 IT업계에 내려진 특명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IT업계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세계 1위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업체 '와츠앱'을 160억 달러(약 17조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수 금액은 페이스북이 했던 기업 인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이었던 사례인 인스타그램의 16배에 달한다.

특히 이번 인수로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판도가 단번에 뒤집힐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중국을 기반으로 한 위챗(월 실사용자 6억 명)과 네이버의 라인(3억4000만 명), 카카오톡(1억3000만 명)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츠앱(4억명)이 12억30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회원을 등에 업으면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가 소비자 평가 사이트인 디안핑을 4억 달러(약 4255억원)에 인수했다. 이 덕분에 텐센트는 월 9000만 명에 달하는 디안핑의 이용자 기반과 오프라인 소매 네트워크를 위챗에 통합해 온·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판도 변화는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IT기업 레노버는 지난달 모토로라를 인수하며 단번에 전 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가 됐다. 특히 양위안칭 레노버 회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몇 년 안에 뛰어넘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모토로라의 특허 2000여 개를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차세대 먹거리를 찾고 있는 애플도 인수·합병(M&A)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다. 애플의 인수·합병 담당임원 애이드리언 퍼리카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런 머스크는 1년 전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타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력을 앞세운 글로벌 IT업체들이 특허·기술 장벽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 알짜 기업들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IT기업들은 현금만 쌓아두고 해외 M&A에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가 20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전문가급 렌즈 교환 카메라 'X-T1'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배율 뷰파인더 "와!"

후지필름 'X-T1' 국내 출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후지필름이 세계 최대 배율 뷰파인더를 탑재한 전문가급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후지필름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올해 내놓는 첫 제품인 'X-T1'을 선보였다.

X-T1은 5개의 아날로그 다이얼, 초당 8연사 트래킹 자동초점(AF), 방진·방습·방한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0.77배율의 세계 최대 배율 뷰파인더를 탑재해 눈으로 보는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마트폰·태블릿 PC로 리모컨처럼 조종할 수 있고 찍은 사진을 와이파이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도 담았다.

색상은 검은색 한 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본체가 149만9000원, XF18-55㎜ 렌즈가 포함된 렌즈키트가 199만9000원이다. /이국명기자

적보라·샛노랑·베이지… 올해 패션 물들일 컬러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마련된 포토존 '패션 애비로드'에서 모델들이 올해 예상 유행 색상인 '적보라' '샛노랑' '베이지' 차림으로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가치 45조7400억

한국 50대 브랜드 117조

세계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인터브랜드'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4'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50대 브랜드 자산 가치가 116조933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브랜드는 197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그룹이다.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평가는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가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4'에 따르면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비해 23% 성장한 45조7408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가 전년비 23% 성장한 10조3976억원, 기아자동차가 18% 성장한 5조4367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포스코가 5% 성장한 2조8799억원, SK텔레콤이 4% 성장한 4조45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작년 1000대 기업 R&D 35조6000억 규모 투자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3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보다 12.7%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R&D 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 35조6000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30조3000억원, 중견기업이 2조4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8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대기업이 13.8%, 중견기업이 3.1%, 중소기업이 9.5%를 기록했다. R&D 집중도(R&D 투자액/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7.05%), 대기업(2.92%), 중견기업(2.29%) 순이었다.

/유주영기자 boa@

역삼동에 '튜닝 명소' 떴다

테크아트 공식 론칭

튜닝 브랜드인 테크아트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승오토모티브그룹 전시장에서 테크아트 코리아 공식 론칭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르쉐 911 카레라4와 카이엔을 바탕으로 튜닝을 거친 모델이 공개됐다.

테크아트라는 회사명은 '기술(TECH)'과 '예술(ART)'의 조합이라는 의미다. 기술담당 대표와 디자인담당 대표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모든 튜닝 분야에서 기술력과 디자인을 강조한다. 1987년 포르쉐 튜닝만을 위한 회사로 설립됐으며, 본사는 포르쉐 공장이 위치한 슈투트가르트의 위성도시 레온베르크에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5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고 아승오토모티브그룹이 한국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엔진 업그레이드, 스포츠 배기 등 퍼포먼스 튜닝이 기본이며, 퍼포먼스 튜닝은 안전성을 우선시한다. 테크아트의 기술대표인 마티아스 클라우스(Matthias Krauss)는 "포르쉐는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차량이다. 안전성을 동반하지 못하는 이벤트성 튜닝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개성을 대변하는 차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포르쉐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설명했다. 테크아트의 모든 퍼포먼스 튜닝은 TUV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 검증을 받는다. 또한 포르쉐 레이싱 대회에서의 압도적인 종합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르쉐 튜닝카의 최고속 등 성능 관련 기록은 대부분 테크아트가 보유하고 있다.

테크아트의 드레스업 튜닝은 성능 향상을 위한 에어로 다이내믹 기술력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포르쉐 911은 시속 140km 주행 시 리어스포일러 장착으로 다운포스를 17.5kg 높일 수 있다. 모든 보디킷 부품들은 차량에 장착해 풍동 테스트를 통해 개발되며, 컴퓨터로 다운포스를 측정한다. F1 드라이버로 구성된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독일의 호켄하임 서킷 주행 테스트를 시행하며 품질을 검증한다.

테크아트 코리아의 차지원 대표는 "모든 튜닝 부품은 국내 법규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면서 "국내 고객 취향에 맞는 튜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공기업 '낙하산' 못 편다

현 부총리 '공공기관 임원자격 소위' 구성 추진… 업무경력자만 가능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일정 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또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한전·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 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 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 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전 재정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 벌칙 강화 ▲재정 지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카메라 2' 출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스마트 카메라 후속작인 '갤럭시 카메라 2'를 20일 국내에 출시한다. 갤럭시 카메라 2는 안드로이드 4.3(젤리빈) 플랫폼을 적용해 최신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며 스마트 기기 간 연동 기능을 강화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팬택, 지문인식 앱 확대 앞장

팬택이 지문인식 스마트폰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보안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

팬택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팬택의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를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팬택 베가 지문인식 기능 적용 앱 실행 화면.

지문인식 SDK 공개는 지문인식 기능의 활용 범위를 넓혀 스마트폰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모바일 소액 결제 앱 '바통'과 신용카드 결제 앱 '모바일 ISP'와 같은 결제 앱 및 팬택 단말의 특화 기능인 시크릿 모드, 잠금화면 해제 등에서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문인식 SDK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기존 앱뿐 아니라 새로 개발하는 앱에도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지문인식 SDK로 개발자들은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보안성을 높인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메신저에서 비밀번호 대신 지문으로 암호를 설정하게 만들 수 있고, 로그인이 필요한 앱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 지문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기존 숫자, 문자 방식보다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박용만 상의회장 "숙제 풀어주오"

고용유연성 등 핵심과제 정부에 우선 해결 요청

재계가 신규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자격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을 금지하는 한편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줄 것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 상의 회장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기업이 정부 계획을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양측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재원과 시간 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규제 개혁' '선진국형 벤처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자격 규제가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 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서는 "경제계는 선배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쓰고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 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 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청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태균기자 ksgit@

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 주국영 상임부회장 선임

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이 주국영 상임부회장을 선임했다.

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은 지난 1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총회에서 주국영 상임부회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된 주국영 부회장은 국세청, 경제기획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사업국장, 기획실장, 관리이사를 맡았다.

"나와 우리 회사 공통분모 개척 DNA"

박희경 젠자임 사장 인터뷰

1995년 제약 영업사원 첫 발 여성 불모지서 두각 나타내 젠자임은 희귀질환약 '외길' 역동적인 일터로 만들겁니다

지난해 11월 수장 자리에 앉은 박희경 젠자임 코리아 대표이사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회사의 가치를 자신의 미션으로 받아들여 이곳에서의 도전을 시작했다. /손진영기자 son@

현재까지 알려진 희귀질환은 약 7000종, 국내 희귀질환 환자 약 50만 명, 그중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10% 남짓. 더욱이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된 질환은 아직까지 20여 개에 불과하다.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 누가 봐도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며 희귀질환에 도전한 여자가 있다. 바로 박희경 젠자임 코리아 대표이사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녀의 얘기를 들어봤다.

"기존에 치료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젠자임은 지난 1981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됐어요. 이후 1998년 한국에 젠자임 코리아가 탄생했고 2011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가 젠자임을 인수하면서 사노피와 함께하게 됐죠."

생소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그녀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희귀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젠자임은 설립 이후 30년이 넘게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고 한다. 젠자임에서 다루는 주요 5개 치료제의 환자 수를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을 만큼 희귀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젠자임은 항상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젠자임은 환자를 위해 시작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중심'이 회사의 철학이 됐고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상업적인 부분보다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된 거예요. 젠자임이 주는 사명감과 의지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든 거죠."

이어 그녀는 젠자임이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그녀는 지난해 11월 젠자임 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희귀질환이라는 생소함과 젠자임의 독보적인 위치에서 오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감히 도전을 선택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회사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도전을 나의 미션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그녀가 처음으로 제약업계 영업사원으로 입문했을 때 상황을 얘기했다. 그녀가 제약업계에 발을 디딘 지난 1995년 당시에는 제약업계에 여자 영업사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불모지였던 이곳에서 영업을 하며 경력을 쌓고 주요 글로벌 제약사 임원을 역임하면서 리더십을 키워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젠자임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노력하는 회사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젠자임 코리아 수장 자리에 올랐고 그만큼 리더십과 능력도 인정받은 셈이다.

이런 그녀의 목표는 '생각하고 역동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

"즐겁게 일해야 도전을 즐길 수 있으니 직원들과 항상 웃으면서 지내려고 노력해요. 또 회사도 장기적인 계획을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여자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 열정을 가지고 젠자임의 숙제를 풀 계획입니다."

과연 그녀다운 포부였다.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실패하면 일어나면 된다'는 말처럼 그녀의 포부에서도, 젠자임 코리아라는 회사에서도 그만큼의 가치가 묻어났다.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여자 박희경 대표이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는 것이 약"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약국에서 이병난(왼쪽) 용산구약사회회장과 고객이 올바른 진통제 복용법을 전하는 '아는 것이 약!수(水)' 행사를 알리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약사회와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이번달까지 진통제를 구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진통제 복용 수칙'이 적힌 생수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진행하는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제공

첨엔 연골 주사제용 개발

시크릿 노트

필러 '이브아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필러. 필러 열풍이라 할 정도로 필러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필러 제품에 대한 호기심 역시 커졌는데 그중 LG생명과학의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사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필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브아르는 처음부터 필러로 개발된 제품이 아니었다. 당초 LG생명과학은 고품질 고분자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해 연골 주사제와 안과 수술용 보조제 등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런 고품질 원료와 기술을 눈여겨본 국내 전문의들이 LG생명과학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개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고 이에 시작된 개발이 이브아르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LG생명과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러 유도체 연구를 진행 중이었기에 의사들의 이런 요청이 필러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이후 LG생명과학은 15년간 축적된 자체 고유 기술 'HESH(High molecular weight Enhancement of Stabilized Hyaluronic acid)' 테크놀로지와 안정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주입할 수 있는 시린지 일체형 디자인을 적용해 이브아르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이브아르는 필러 시장에 자신의 등장을 알렸다.

이런 기술력 때문인지 이브아르는 출시 이후 고공 성장을 기록 중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08%,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49%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 2년 만에 국내 필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판매 개수를 기준으로 필러 시장 1위에 등극했다.

이와 함께 현재 LG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재됐으며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에서 승인을 받은 이브아르의 고분자 히알루론산 원료와 이브아르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이브아르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길 응원한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장 건강 돕는 '리튠…' 출시

● **LG생명과학**이 장 건강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리튠 베네핏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 제품은 5종의 복합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맛 분말 형태로 1포씩 포장돼 있어 물 없이 씹거나 녹여서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제품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치커리 뿌리 추출물과 프락토올리고당·비타민 B2·엽산 등도 보조 성분으로 들어있다.

피임약 '노원' 리뉴얼 나와

● **한미약품**이 질좌제 타입의 1회용 여성 피임약 '노원'의 외부 포장과 규격을 리뉴얼해 재출시했다. 한미약품은 제품 전체에 여성 선호도가 높은 핑크색을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규격을 6매 입으로 변경했다. 또 포장도 정사각형(6cmX6cm)으로 수정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RFID도 부착돼 있다.

첨단의료기기 3만점 한눈에

●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4)'**가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KIMES 2014는 '행복을 열어가는 스마트한 세상'을 주제로 총 3만여 점의 첨단 의료기기와 병원 설비, 의료정보 시스템, 의료 관련 용품 등을 소개·전시할 예정이다.

PC방 유저 홀리러 간 '구미호'

웹젠이 MMORPG '구미호: 유혹의 탑'의 PC방 서비스를 20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구미호: 유혹의 탑'은 중국의 인기 영화 '화피2'의 내용을 재구성한 콘텐츠, 날씨와 계절의 변화까지 구현한 수준높은 그래픽으로 국내외 게이머로부터 관심을 받아온 무협 판타지 MMORPG다.

게임 내 사냥으로 '여우 카드'를 획득해 이를 조합하거나 강화하면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구미호 시스템'과 일대일 대결부터 인원의 제한이 없는 '방파전'까지 다양하게 마련된 PvP 대전 콘텐츠는 '구미호: 유혹의 탑'의 핵심 요소다.

웹젠은 PC방 접속자에 한해 1시간마다 캐릭터 속성(스탯) 증가 아이템 등이 제공되는 'PC방 전용 선물상자'를 주고 지역 이동에 필요한 캐시아이템 없이도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기자

'…밀레니엄의 소녀' 27일 발매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신 세계수의 밀레니엄의 소녀'가 27일 정식 발매된다. 한국닌텐도는 2007년 출시돼 큰 인기를 얻은 '세계수의 미궁' 시리즈 최신작을 이같이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신 세계수의 밀레니엄의 소녀는 캐릭터 육성 게임으로 터치펜으로 던전 구조나 보물상자 위치를 지도에 직접 그려가며 레벨을 올릴 수 있다. 게임 중 언제든지 3단계의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배경음악도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선곡할 수 있다. 가격은 4만9000원.

최초의 도시 던전, 중세 서부원정지로!

조슈아 모스키레아 디아블로Ⅲ 개발팀 책임자가 디아블로Ⅲ 확장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아블로3' 확장팩 매력 공개
사냥 보상금 확 올라 예측불허
소셜기능 강화 '커뮤니티 동맹'
"접속자 폭주 기대…서버확장"

올해 최대 화제작 가운데 하나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게임 '디아블로Ⅲ'의 확장팩이 공개됐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기대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다섯 번째 확장팩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베일을 벗었다.

블리자드는 20일 '디아블로Ⅲ: 영혼을 거두는 자'의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확장팩에서는 성전사가 새로운 영웅으로 합류해 이용자들은 용사, 사냥꾼, 수도사, 부두술사, 마법사 등 여섯 영웅을 조작할 수 있다. 기존 영웅들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추가됐고 각 영웅에 맞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리품 시스템도 재설계됐다.

아울러 디아블로Ⅲ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새로운 스토리 모드인 제5막이 추가됐다. 배경은 중세시대의 서부 원정지로 디아블로 최초의 도시 형태 던전이다.

이용자들은 모험 모드에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0~20분으로 구성된 모험 모드 '네팔렘의 차원균열' 던전에서는 모든 것이 무작위로 진행된

다. 지역 및 괴물, 우두머리 등이 무작위로 등장해 사냥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유저들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소셜 시스템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클랜 및 커뮤니티로 동맹을 맺을 수 있고 각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캐릭터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

조슈아 모스키에라 디아블로Ⅲ 개발팀 책임자는 "이번 확장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으며 확장팩 공개가 무척 떨린다"면서 "동시 접속자 폭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버 확장·관리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디아블로Ⅲ: 영혼을 거두는 자'는 다음달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블리자드는 확장팩으로 복귀하는 이용자에게 경험치 버프를 제공할 예정이며 예약 구매자에 한정해 아이템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WOW' 확장팩에는 던전 7개 추가

한편 이날 브라이언 홀린카 WOW 선임 게임 디자이너도 행사에 참석해 이 게임의 다섯 번째 확장팩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의 개발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WOW 확장팩은 7개의 던전과 2개의 공격대를 추가했고 스토리를 일반, 영웅, 도전 모드로 구분했다. 또 주둔지를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해 이용자들의 하우징 경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켰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의 발매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발 진행에 맞춰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진격의 아이온 열쇠가 필요해

아이온이 '진격, 보랏빛로드' 이벤트를 연다.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아이온의 이벤트를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우로 군수기지나 룬의 보호탑 인던을 경험하지 못한 65레벨 캐릭터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에서 캐릭터 조회 후 '진격의 열쇠'를 받으면 이벤트가 시작된다.

진격의 열쇠로 해당 인던에 입장해 보스 몬스터 근처에 있는 '진격의 상자'를 개봉하면 파티원 전원이 신화용 조율 주문서(무기·방어구용), 티아마트 친위대 방어구, 빈다치의 고급 합성 도구, 불멸의 상급 주문서 꾸러미 등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다. 진격의 열쇠 소지자와 함께 인던을 공략한 캐릭터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인던 활성화를 위해 각 종족의 대도시인 엘리시움과 판데모니움에 이벤트 대상 인던으로 입장을 도와줄 NPC를 추가 배치하고, 인던 입장 횟수도 2배 증가한다.

엔씨소프트 G사업2실 최용준 실장은 "'진격, 보랏빛로드 이벤트'는 숙련자와 미숙련자가 함께 상위 인던을 공략할 수 있는 이벤트로, 최고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 일석이조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올봄 '롤의 시대' 끝내줄 도전자들

위닝 일레븐 2014·검은 사막·블레스
비공개테스트 인기끌며 흥행 예고

따끈따끈한 게임 신작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차기 작품들이 20일 현재 82주째 게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아성을 막고 침체된 온라인게임 시장을 부흥시킬 지가 관전 포인트다.

먼저 6월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을 겨냥해 신작 축구 게임이 모습을 드러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위닝 일레븐 2014'(위)의 출격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위닝 일레븐 2014의 첫 번째 비공개테스트(CBT)를 마친 상태며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이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온라인3'의 모바일 버전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피파온라인3의 온라인과 모바일 버전 쌍끌이 흥행이 가능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대작들도 봄 출격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검은사막'의 공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게임은 지난해 10월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CBT에 15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며 큰 기대를 모았다. 검은사막은 스타 개발자 김대일 대표가 설립한 펄어비스의 첫 작품으로 장대한 액션과 대규모 공성전이 특징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블레스'(아래) 출격을 기다리는 중이다. 20일 CBT를 시작한 블레스는 1차 CBT 참가자 1만 명 모집에 18만 명이 지원하며 올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CBT는 23일까지 진행되며 CBT 참가자들은 클라이언트 사전 내려받기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엑스엘게임즈는 '문명 온라인', 소프트맥스는 '창세기전4'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끝낸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 운동 치료 도움
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 정도 고주파 시술로 끝!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다. 이에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교정하는 곳을 찾아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이후 엉덩이 통증과 다리 당김이 심해져 유명 척추병원들을 찾아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으나 가격만 비싸고 효과는 일시적이라 결국 수술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다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제4~5 및 제5 요추-제1 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했다. B씨는 요추 신경치료 주사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의 척추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치료로 빠른 회복 도와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만을 받다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병원인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정확한 진단을 시행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환자일 경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선행한 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최근에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시술이다.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맞춤형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뼈를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이며 감압치료는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다. 또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기자

이대병원 인턴, 가족 앞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로서의 첫발 축하 훈훈한 초청행사 눈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신입 인턴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인턴들을 축하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수고한 인턴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 열린 이대목동병원 2014년도 신입 인턴 가족 초청행사에서 신입 인턴들이 가족과 이화의료원 관계자들 앞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

행사에는 인턴과 가족들을 비롯해 이순남 의료원장, 유권 병원장, 김영주 교육연구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연습했던 팀별 하모니 합창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의사 가운 착의식에선 가족들이 직접 의사 가운을 입혀줬고 인턴들은 자신의 첫 의사 명함을 가족들에게 전달해 감사 표시를 했다. 이후 인턴들은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127년의 역사를 지닌 이화의료원은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면서 "우리 의료원은 오늘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모든 인턴이 이화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임신·수유부 영양 불균형

국내 임신·수유부의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부의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915㎉로 권장량의 82.5% 수준이었으며 2100㎉(92.2%)를 섭취하는 수유부도 권장량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임신·수유부 10명 중 2명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임신부의 칼슘과 철의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칼슘 930㎎, 철 24㎎)의 60.5%와 58.8% 수준이었다.

반면 임신·수유부는 일반 가임기 여성과 마찬가지로 하루 권고량(2000㎎) 대비 200%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척이는 잠버릇 '척추 주의보'

척추관협착증·디스크 땐 똑바로 누우면 통증 느껴

자세를 바꿔가며 잠을 자야 몸에 좋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뒤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척추가 올바르게 정렬된 사람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퇴행성 척추질환이나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 본능적으로 덜 아픈 자세를 찾는다.

실제로 척추관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똑바로 누우면 척추관이 좁아지고 하반신으로 연결된 신경이 눌려 통증이 오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이런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옆으로 몸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허리 통증이 있고 뒤척이며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천세훈 은평튼튼병원 원장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뒤척임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뒤척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척추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또 척추질환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병을 키우거나 쉬쉬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청춘의 외식 '할인 세리머리'

축하·기념일 많은 2~3월 무료 메뉴 등 혜택 다양

2, 3월에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어린 날을 추억할 수 있는 날이 많다. 정든 친구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졸업식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나 입학식을 준비하는 시기다. 여기에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 포함돼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청춘 마케팅'이 한창이다.

버거킹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한정판 '러브팩'을 21일까지 판매한다. 친구·연인이 함께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와퍼주니어와 스테디셀러인 불고기버거, 인기 메뉴인 치즈웨지감자, 콜라(R) 2잔이 7900원에 제공된다.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더플레이스는 사랑의 축제라는 의미의 '띠아모 피에스타(TI AMO FESTA)' 화이트 세트 메뉴를 다음달 16일까지 선보인다. 봄 딸기 샐러드와 그릴드 치킨·피자·디저트·음료수로 구성돼 있다.

아워홈의 돈카츠 외식 브랜드 사보텐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졸업·입학생에게 돈카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츠(かつ·승리) 데이'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벌인다. 졸업생이나 신입생은 학생증 등을 제시하면 더블치즈카츠를 무료로 준다. 제주흑돈카츠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더블치즈카츠나 로스카츠 정식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버거킹 제공

이탈리안 홈메이드 뷔페 레스토랑 제시카키친은 3월 5일까지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졸업·입학 축하 2+1 이벤트'를 벌인다.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고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졸업·입학생을 동반한 성인 3인 식사 때 1인 무료 식사권을 제공한다. 제시카키친 페이스북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졸업을 인증할 수 있는 물품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히나마쓰리' 구경오세요

일본문화원 다음달 3일까지 특별기획전…돌하우스 전시·워크숍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일본의 전통 풍습 '히나마쓰리'를 맞이해 다음달 3일까지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히나마쓰리란 매년 3월 3일에 여자아이의 아름다운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으로 집 안에 '히나인형'(위 사진)을 장식하고 온 가족이 모여 달콤한 일본 술 '시로사케'와 맑은 대합국, '치라시즈시', 마름모꼴의 3색 무지개떡 '히시모치', 쌀과자 '아라레' 등을 먹으며 보내는 행사다.

일본의 전통 풍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준비한 이번 기획전은 히나마쓰리에 쓰이는 히나인형전을 비롯해 돌하우스 전시 및 워크숍, 일본 전통음악 공연, 일본 영화 상영회 등으로 구성됐다.

히나인형전에선 7단 선반에 화려하게 장식된 히나인형을 비롯해 각종 의상 인형·풍속 인형·소품 등을 볼 수 있다.

돌하우스 전시에선 일본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본 TV도쿄의 장수 프로그램 'TV 챔피언' 돌하우스 부문 초대 우승자인 혼자와 도시오의 작품(아래)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작가들의 작품 약 50점이 전시된다. 또 혼자와를 포함한 일본 작가들의 지도로 참가자가 직접 돌하우스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도 열린다.

돌하우스는 인형이 사는 집이 아닌 인형이 들어갈 만큼 작다는 뜻에서 비롯됐으며 실제 집과 거의 유사한 모양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이번 워크숍은 '스테인드글라스 하우스 만들기'와 '요정의 정원 만들기' 두 개 수업이 진행된다.

한편 일본 전통 악기인 고토·샤미센·샤쿠하치로 구성된 일본 전통음악 공연 '일본의 풍경 콘서트'와 일본 여배우 '아오이 유우' 출연작 8편을 집중 소개하는 일본 영화 상영회도 열린다.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www.kr.emb-japan.go.jp), 전화: 02)765-3011(내선 120·123)

/김지민기자

온라인몰 교복 단품구매 급증

학교별 디자인 차이 적은 바지·블라우스·조끼 등 최대 60% 이상 가격 저렴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온라인 몰에서는 '교복 단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교복 단품이란 학교 지정 공식 교복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흰색 셔츠 및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조끼 등으로 학교별로 디자인 차이가 없어 교복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교복 단품은 평균 가격이 1만~2만원대로 메이저 교복 브랜드의 단품 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인터파크에서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셔츠와 바지·조끼 등 교복 단품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재킷 외 2~3벌이 필요한 셔츠와 블라우스 판매량은 같은 기간 각각 43%, 44% 급증했다. 바지 판매량은 48%, 환절기에 유용한 조끼와 카디건 판매량도 각각 21%, 29% 증가했다.

옥션에서도 비싼 브랜드 교복 대신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2월 들어 남성 교복 단품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옥션에서는 교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하얀색 셔츠와 조끼·바지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환절기 때 많이 입는 교복 조끼(9800원)는 감색·자주색·검정색 등 다양한 색상 중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기본 면 소재 셔츠는 1만5900원이며, 교복 바지는 회색 외 4가지 색상으로 1만5600원에 선보이고 있다.

인터파크 쇼핑 패션팀 엄준섭 MD는 "중·고등학교 배정이 발표되면 여벌로 필요한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와 바지 등을 구매하려는 학부모들로 인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속 쇼핑이 확산됨에 따라 교복 구매 성향도 점차 '오프라인 교복 공동구매'와 함께 '온라인 몰 교복 단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식사-디저트-차 '풀코스 매장' 뜬다

카페 리맨즈·팔색삼겹살 인기 끄는 대표적 복합매장 '음식점 품은' PC방도 등장

최근 유통업계에 결합형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한 곳에서 식사와 디저트는 물론 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페 리맨즈' 컬렉션 키친은 간단한 브런치부터 식사와 디저트, 차를 매장에서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다이닝 카페다.

이국적이면서 아늑한 매장 분위기와 함께 기존 다이닝 카페보다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디저트·브런치뿐 아니라 생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든 리얼 에이드 음료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특히 젊은층들에게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8가지 색, 8가지 맛을 즐기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팔색삼겹살'은 매장 내 커피전문점이 있다. 이 업체의 종로점에는 '카페8'이라는 커피전문점이 함께 있어 여성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매장 내부에 커피전문점을 도입,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은 고품질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등의 커피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라이온pc스튜디오 제공

단순히 인터넷게임만을 즐기는 장소가 아닌 카페와 편의점 등과의 결합을 통해 멀티펑션 플레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라이온PC스튜디오'는 '디지털 카페 스튜디오'를 표방하며 PC방 전체를 카페로 바꾼 인테리어를 적용했고 뉴욕·빈·런던·프라하·파리·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를 테마로 설계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 수제 샌드위치와 머핀 이외에 '스테프핫도그'와 제휴를 맺고 PC방 안에 핫도그 매장을 들이는 등 다양한 카페 스튜디오를 실현하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고객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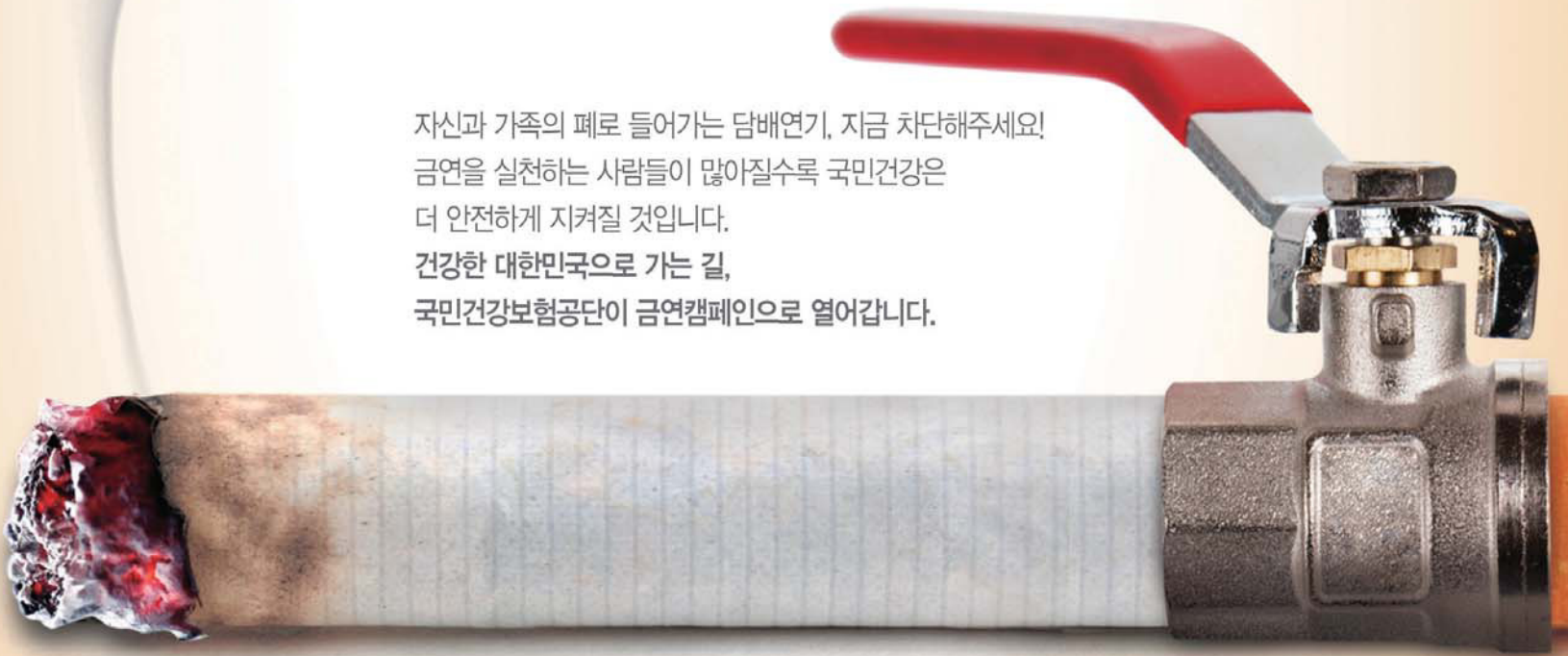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외식업체나 카페, 각종 매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로 인해 고객층도 넓어져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흡연밸브를 잠그면 가족행복이 켜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폐로 들어가는 담배연기, 지금 차단해주세요!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민건강은
더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캠페인으로 열어갑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8,000명
-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흡연이 질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남성

여성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금액은 연간 약 1조 7천억 원으로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이며, 국민 전체 한 달치 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 흡연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 5.7배, 폐암 발생률 2배 높음

※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가 타들어 가며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류연은 담배 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 그리고 니코틴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독한 연기로,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기 중 섞이는 담배연기 가운데 75~85%는 부류연이라고 합니다.

‘충정로 서서갈비’ 소박한 운치

산지 직송 한우만 사용
친환경 비법소스로 숙성
고기 안타는 특허석쇠로
참숯향 배도록 지글지글
6000원 육개장도 맛보길

최근 음식점들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친근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곳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충정로 서서갈비’는 작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실내 분위기가 운치를 자아내 갈빗집이라기보다는 고급 찻집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의 주 메뉴는 소갈비와 생고기·육개장·육개장칼국수 등이다. 소갈비는 고기 맛 좋기로 유명한 산지에서 직송받은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한다. 잘 다듬어진 갈빗살은 배와 사과 즙, 연한 간장과 마늘 즙 등을 섞어 정성스럽게 만든 ‘비법 소스’에 10시간 가까이 재워 숙성시키는 노력을 거쳐 손님상에 오른다. 여기에 참숯의 향기가 고기 속에 배이면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다. 특허받은 석쇠는 고기가 타지 않고 맛과 온기를 동시에 유지하도록 해준다.

함께 내놓는 배추와 파 등 채소는 경기도 고양시 월광사 인근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다.

특히 고기를 숙성시킬 때 사용한 배·사과·마늘 등의 건더기가 이들 채소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라고 하니 믿음이 간다.

이곳의 소갈비 가격은 맛과 정성에 비하면 저렴한 200g에 1만6000원이다.

생고기는 150g에 2만3000원이다. 6000원인 육개장 역시 직접 만든 주원료로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육개장 칼국수(5000원)는 구수하면서 살아있는 면발이 자랑으로 한 끼 식사로 더없이 좋은 별미다.

/정영일기자 prms@

펄 파우더로 ‘보톡스 터치’

동안의 조건 ‘입체감’…조명·성형 받은듯 하이라이트 메이크업 요령

푹 꺼진 볼살과 밋밋한 얼굴은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 메리케이 관계자는 “입체감 있는 얼굴은 ‘동안’의 핵심 포인트”라며 “최근 간단한 터치만으로 얼굴의 볼륨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와 콧대, 광대 등에 하이라이트만 잘 줘도 성형외과 시술 못지않은 또렷한 동안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뷰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펄을 사용한 ‘은갈치 메이크업’은 곤란하다. 미세한 펄감으로 피부 속부터 빛나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케이 ‘쉬어 디멘션 파우더’는 일반 제품과 달리 입자가 둥근 돔 형태의 ‘3D 입체 구조’로 제작돼 피부 주름 사이에 끼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쉬어 디멘션 파우더- 펄’의 경우는 펄감이 강해 이마·콧날·턱 등에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쉬어 디멘션 파우더- 리본’은 치크 메이크업에 활용하면 보다 생기 있는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다.

맥 ‘미네랄라이즈 스킨피니쉬 내추럴’은 미네랄 성분과 미세한 펄이 마치 화장을 안 한 듯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섀도 단계에서 광대뼈와 턱선 등 음영을 주고 싶은 부위에 살짝 바르면 얼굴의 입체감이 살아난다.

건조함과 번들거림 두 가지 고민을 모두 잡아주는 슈에무라 ‘듀얼 핏 프레스드 파우더’는 입자가 고운 탑 코트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원하는 부위에 브러시로 쓸어내리듯 바르면 은은하게 빛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23일은 인삼데이… 할인 받으세요 홈플러스는 2월 23일 ‘인삼데이’를 맞아 26일까지 관련 상품 4종을 시중가 대비 10~25%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포카리스웨트로 환절기 기관지 촉촉하게

추위가 한풀 꺾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3월까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환절기엔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 등으로 코·목 등 호흡기 쪽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위생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따뜻한 물 또는 체액 성분과 비슷한 이온음료를 틈틈이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재현 동아오츠카 홍보팀장은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포카리스웨트는 체액에 가까운 성분으로 물에 비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체내 수분 상태를 유지시켜준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굽네치킨 선착순 할인에 ‘지구’ 달아올랐다

굽네치킨은 큐레이션 쇼핑몰 지구(G9)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0명에게 굽네치킨 할인 이벤트를 벌였다.

이 이벤트를 통해 굽네치킨은 권장 소비자가격 1만5000원보다 2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굽네치킨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픈마켓 G마켓이 운영하는 큐레이션 쇼핑몰 G9를 통해 선착순 할인 행사를 벌여왔다.

이병수 지엔푸드 팀장은 “지난달 8일 진행된 굽네치킨 할인 이벤트가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소진돼 이틀 만에 완판됐다”며 “지난해에는 이벤트 시작 30분 만에 전부 팔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G9를 통해 굽네치킨 할인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혼수시장 “얼리버드 커플, 날아와!”

5월 결혼성수기 앞서
할인 행사 챙기세요

가구·침구업계가 5월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 신혼부부를 겨냥한 혼수 할인 이벤트를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토털 리빙 브랜드 시몬스는 이달 말까지 ‘아이 러브 포켓스프링’ 프로모션을 연다. 이 기간 시몬스 베스트 추천 제품인 ‘D2098’ ‘F2136’ 모델과 뷰티레스트 아이-시너지 플러스 이상 매트리스 세트를 구매하면 20만원 상당의 ‘포켓스프링 베개 세트’를 증정한다.

침구 전문업체 이브자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 신부와 친정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이브자리 데이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브자리 홈페이지에서 친정 엄마에게 데이트 신청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피부관리실 웨딩 패키지·SK-II 웨딩세트 등 총 2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117명에게 제공한다.

매트리스·베개 업체 템퍼는 다음달 2일까지 베개·액세서리를 제외한 전 품목을 할인하고 매트리스 구매 고객에게 ‘템퍼 오리지널 베개’를 선물로 준다. 청첩장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여행용 목베개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겁보’인 내가 귀신역 할 줄 몰랐어요”

‘처용’으로 연기 데뷔 씨크릿 전효성

볼륨 몸매, 시크릿, 속옷 화보, 치어리딩. 포털사이트에 전효성(26)을 검색하면 뜨는 연관어다. 걸그룹 시크릿의 멤버이자 볼륨 있는 몸매로 눈길을 끌었던 그의 이름 아래 최근 한 줄이 더 추가됐다. ‘배우 전효성’. 시크릿 데뷔 6년 만에 첫 공식 개인 활동에 나선 전효성은 케이블 채널 OCN의 10부작 미스터리 수사 드라마 ‘처용’에서 기억을 잃은 여고생 귀신으로 분했다.

◆ 여고생 귀신 열연… 존재감 빛나

“실제로는 가위에 잘 눌리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저도 첫 연기 데뷔로 귀신 역할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귀신 보는 형사 윤처용(오지호)과 함께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습의 귀신을 창조했다.

160cm 키에 웃을 때 잇몸이 살짝 보이는 얼굴. 활발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 전효성이 생각한 ‘처용’ 속 귀신인 나영의 모습이다.

그는 촬영에 앞서 극 속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고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분석한 편지를 제작진에게 보내기도 했다.

“오디션 당시 작가님께서 ‘아이돌이 연기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반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염려를 한 거죠. 하지만 스스로 작품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나영 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름대로 캐릭터를 만들고 준비했었어요.”

그런 그가 만든 귀신 나영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수사하는 귀신’으로 매회 윤처용을 돕는다.

오지호와 오지은 사이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존재감을 빛내며 아이돌 정극 출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100% 사전 제작된 탓에 한 회 한 회 시청자들의 반응을 볼 수 없는 불안함을 떨쳐야 했다.

“촬영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있었는데 연기 데뷔작임에도 100% 사전 제작이라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연습한 춤과 노래를 하면 되지만 연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플랜 A·B를 세우기도 했어요. 첫 촬영 전까지는 영화 ‘여고괴담’ 등을 보기도 하고 혼자 녹음을 해가며 연습을 했어요.”

촬영 중간에는 선배 배우나 감독과의 대화로 연기를 배웠다.

“감독님뿐만 아니라 선배들과도 대사 호흡이나 제스처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었어요. 나영이 고통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실감 나는 연기를 위해 실제 목을 조르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오지은 언니는 생니를 뽑았을 때 느낌이라고 설명해주기도 했었죠.”

◆ 변화, 두렵지 않아요

첫 방송이 있었던 지난 9일. 그는 일본에 있어 본방 사수를 못 했다고 한다.

“1회는 씨크릿 멤버 선화와 대만에서 봤는데 선화가 귀엽게 잘 나왔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직 긴가민가해요. 드라마를 보면 문제점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연기자 전효성에서는 시크릿 전효성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기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술에 배가 부르겠냐 마는 그의 변신 욕심은 좋아 보였다. 물론 변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효성은 한 속옷 브랜드의 모델로 나서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녹음하며 연습 또 연습 연기 ‘합격점’… “다음엔 로코 도전”

“속옷 광고를 하고 난 후 매출이 5배 이상 뛰었다고 들었어요. 당시 ‘포이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돌의 속옷 화보라는 점에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변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스물여섯살의 전효성은 또 다른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는 앞으로도 시크릿에서는 지금과 같은 밝고 젊은 느낌을, 개인 활동에서는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는 시크릿 멤버 모두 개인 활동을 활발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솔로 앨범도 준비하고 싶고 향후에는 로맨틱 코미디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섣불리 어설픈 모습을 보이기보다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스물여섯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위한 준비도 기꺼이 할 자신이 있다는 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터프·우아…네가지 매력있는 무대"

2NE1 내달부터 월드투어… "정규 2집 '크러시' 신선할거예요"

유명 공연 연출가인 트래비스 페인(뒷줄 왼쪽)과 스테이시 워커(뒷줄 오른쪽), 정치영 YG엔터테인먼트 이사(뒷줄 가운데)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2NE1의 월드투어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2NE1이 '모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두 번째 정규앨범과 월드투어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들은 26일 정규 2집 '크러시'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ON)'의 서막을 연다. 이틀간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일본·중국 등 9개 국 12개 도시에서 15회 공연한다. 총 20만 명을 동원한다.

월드투어를 위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난 17일부터 실제 무대와 같은 대형 세트를 짓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 2NE1은 "이번 투어에서 여성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보이려고 한다. 그 목표에 맞춰 공연이 짜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의 우주 콘셉트는 인간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골랐다"며 "무대 위에서 만큼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세계적인 공연 연출자 스테이시 워커는 "월드투어는 네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남자 못지않은 터프한 매력,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 섹시한 매력, 거칠고 광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NE1은 이번 투어를 앞두고 신곡으로 가득 채운 4년 만의 정규앨범을 발표해 한층 새로운 무대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씨엘의 자작곡 3곡과 그가 작사에 참여한 2곡이 포함됐다.

씨엘의 첫 자작곡에 대해 공민지는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다"고 했고, 산다라박은 "씨엘이 멤버의 개성을 잘 끄집어내 노래를 만들었다. '크러시'를 부르며 6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내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칭찬했다.

소녀시대와 같은 시기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2NE1은 "오랜만에 소녀시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 많이 기대하고 있다. 다른 색을 가진 팀이라 그분들의 음악도 기다려진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NE1은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실전 연습을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중국은 '아빠 어디가' 열풍

모바일게임·영화까지 인기

MBC '아빠! 어디가?'가 중국 대륙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포맷을 수입해 새롭게 제작된 중국판 '아빠! 어디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2회를 방송해 평균 시청률 4.3%, 최고 시청률 5.67%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40여 개의 위성 채널이 병존하는 중국에서 1%를 넘기는 예능 프로그램이 연간 5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프로그램이 종영된 이후에는 모바일게임이 출시됐고, 최근엔 '아빠! 어디가?' 영화까지 개봉돼 10여 일 만에 1000억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현재 후난TV는 '아빠! 어디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여름 방송 예정이다.

중국판 담당인 씨에디쿠이 PD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많이 반성했다. 남주외 여주내(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한다) 문화로 인해 아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중국 가정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줬다"며 프로그램 성공 요인을 밝혔다. /탁진현기자

'아빠! 어디가?' 중국판 홍보물. /MBC 제공

동방신기 이번엔 '사랑의 마법'

솔 펑크 '수리수리' 발표

동방신기(사진)가 위기에 빠진 여동생을 구하러 나선다.

동방신기는 7집 수록곡 12곡에 신곡 3곡을 추가한 리패키지 앨범 '수리수리'를 27일 출시한다. 7집 타이틀곡 '섬싱'으로 활동해온 이들은 색다른 신곡으로 다시 한 번 가요계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수리수리'는 간결한 셔플 리듬에 베이스와 일렉 기타 선율, 흥겨운 브라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솔 펑크 장르의 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후 함께 한 순간들이 큰 의미가 되는 경험을 담았다. 사랑은 주문에 걸리듯 빠져드는 마력 같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수리수리'로 붙였다.

'섬싱'에서 줄을 이용한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무대를 선사한 만큼 '수리수리'에서도 동방신기만의 차별화된 안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24일 네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같은 소속사의 소녀시대가 뮤직비디오 데이터 손실로 컴백이 미뤄진 공백을 동방신기가 대신 채우며 SM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해 활동할 예정이다.

소녀시대와 2NE1이 같은 시기에 새 앨범으로 정면 대결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돌발 변수로 변경된 동방신기와 2NE1의 경쟁도 흥미를 끌 전망이다.

동방신기는 '섬싱'으로 국내외 각종 음반차트 1위 석권은 물론 엠넷 '엠카운트다운' 트리플 크라운 수상, KBS2 '뮤직뱅크' 2주 1위, MBC '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 1주 1위 등 음악 방송에서만 총 7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유순호기자 suno@

'별그대' OST 음원 올킬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수현(사진)이 음원차트까지 점령했다.

'별그대' OST 파트8 수록곡인 김수현의 '너의 집 앞'이 19일 공개와 동시에 멜론·엠넷·벅스·올레뮤직 등 10개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을 향한 아쉬움 가득한 마음을 담백한 사운드로 담아낸 발라드로 김수현의 애절한 보이스와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김수현의 풍부한 성량과 감성이 곡의 깊이를 더해준다.

19일 방송된 '별그대' 18회 중 천송이(전지현)가 도민준(김수현)의 일기 마지막 장을 읽던 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삽입돼 극의 애절함을 더했으며, 사랑의 결말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김수현은 앞서 KBS2 '드림하이'와 MBC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에도 OST에 참여해 가창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별그대'는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임슬옹·왕지혜 '호텔킹' 출연

2AM 임슬옹(왼쪽 사진)과 배우 왕지혜(오른쪽)가 다음달 29일 첫 방영될 MBC 새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에 출연한다.

MBC는 20일 "앞서 캐스팅된 이동욱과 이다해에 이어 임슬옹과 이다해가 합류해 주요 라인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이 드라마에서 씨엘호텔의 컨시어즈 3년차 직원 선우현을 연기한다. 선우현은 긍정의 아이콘과 성실의 바이블로 불리며 진정한 호텔리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총지배인 차재완(이동욱)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모네(이다해)를 두고 삼각관계를 이룬다.

왕지혜는 전직 아나운서이자 씨엘호텔의 레스토랑 대표 송채경을 연기한다.

특히 임슬옹과 왕지혜는 MBC '개인의 취향'에 이어 다시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탁진현기자

K-팝 브랜드 '원더케이' 출시

국내 최대 음악 제작·유통 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 브랜드 원더케이(1theK)를 출시했다.

원더케이는 지속적으로 뉴미디어 채널을 확장해 아이돌 중심의 일관된 콘텐츠 외에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K-팝을 제공하며 한류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마켓에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음반 기획사들이 공동으로 원더케이를 키우고 동방성장을 도모한다는 것도 원더케이의 주요 목표다. /유순호기자

JTN MEDIA와 함께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길 망설이는 당신에게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조기예매 할인

평일 40% ~~40,000원~~ → 24,000원

주말 30% ~~40,000원~~ → 28,000원

2월 17일~ 2월 23일까지 예매자에 한해서

대학로 예술마당2관 OPEN RUN

평일 8시 , 토요일 3시, 6시30분,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3시

제작 : 도모 컴퍼니, 꿈꾸는 오늘, 부평아트센터

주관 : 도모 컴퍼니, JTN MEDIA 후원 : SpaceTalk for a better space

티켓 : 인터파크 1544 – 1555 단체관람 및 공연 문의 070 8245 2602

이 영화 보고 소통문제 힐링 받자

커밍아웃 엘렌 페이지 '사랑이…' 내달 13일 개봉

얼마 전 커밍아웃을 해 화제를 모은 엘렌 페이지가 새 영화 '사랑이 필요할 때'(사진)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과 치유의 상관관계를 그린 이 영화는 다음달 13일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2013 선댄스영화제 공식 경쟁작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신체 접촉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마사지 치료사 애비(로즈메리 디위트)와 연하남 애인 인 제시(스쿳 맥네어리), 내성적인 치과의사 폴(조시 파이스)과 폴의 딸이자 애비의 조카로 남몰래 제시에 대한 마음을 키워온 제니(엘렌 페이지)가 서로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배급사 측은 "화이트데이에 맞춰 개봉하는 '사랑이 필요할 때'는 소중한 가족·연인·동료들과의 관계, 소통의 문제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정재영·이성민 '방황하는 칼날' 4월 개봉

딸 잃은 아버지의 복수극 그려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정재영·이성민 주연의 영화 '방황하는 칼날'(사진)이 4월 개봉을 확정했다.

이 영화는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 버린 아버지(정재영)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이성민)의 가슴 시린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20일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에는 딸을 잃은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된 아버지의 딜레마가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12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개시한 '딸을 죽인 소년을 살해한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살인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대국민 투표도 화제를 불러모으며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사적 복수에 의한 살인'의 정당성을 묻는 이 질문에 단 하루 만에 1만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작성됐다. 또 19일 현재 기준 20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댓글 수, 공유 수에 이어 150만 회가 넘는 동영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탁진현기자

67세 보위 최고령 가수상

영국 '브릿 어워드' 시상식

밴드 악틱 몽키즈 2관왕

영국 글램록의 선구자 데이비드 보위(67·사진 왼쪽)가 '브릿 어워드 2014'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20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진행된 '브릿 어워드'에서 보위는 남자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67년 데뷔한 보위는 과거 이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상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의 수상은 역대 최고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보위는 지난해 3월 서른 번째 정규앨범 '더 넥스트 데이'를 발표했고 이 앨범으로 20년 만에 영국 UK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 보위는 시상식에 불참했으며 모델 케이트 모스가 대신 수상 소감문을 읽었다.

보위는 소감문을 통해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자신의 노래 가사를 이용한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스코틀랜드여, 우리와 함께하자"고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브릿팝 밴드 악틱 몽키즈가 올해의 앨범상과 영국 그룹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다섯 번째 정규앨범 'AM'으로 주목받은 악틱 몽키스(오른쪽)는 마이스페이스에 자신들의 음원을 올리다가 2005년 7월 인디 명문 도미노와 계약하면서 그해 10월 데뷔 싱글 '아이 벳 유 룩 굿 온 더 댄스플로어'로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영국 최우수 신인에는 바스틸이 선정됐고 영국 여성 솔로는 엘리 굴딩이 차지했다. 영국 올해의 프로듀서 상에는 영국 록밴드 포올스의 '홀리 파이어'를 프로듀싱한 플러드와 앨런 몰더에게 돌아갔다.

샘 스미스는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선정한 크리틱스 초이스 부문에서 수상했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인임에도 2개의 트로피를 받았던 뉴질랜드 출신 아티스트 로드는 이번 브릿 어워드에서도 인터내셔널 여성 솔로 아티스트 부문에서 수상했다.

브릿 어워드는 영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음반 분야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서 음악 분야에서는 영국 최고의 상으로 꼽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김희애·유아인 '아찔한 로맨스'

월화극 '밀회' 포스터 공개… 내달 17일 첫 방송

김희애(사진 왼쪽)·유아인(오른쪽)이 나이를 뛰어넘는 강렬한 로맨스를 예고했다.

20일 공개된 JTBC 새 월화극 '밀회' 포스터는 남녀 주인공인 오혜원(김희애)과 이선재(유아인)가 서로를 탐닉하는 듯한 눈빛으로 키스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희애와 유아인은 스무 살의 나이차를 무색하게 한다.

또 이 포스터는 두 남녀의 서로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무겁게 드러내며 심리적 불안함을 극적으로 표현해낸다. 여기에 붓으로 거칠게 쓴 듯한 캘리그래피와 '설렌다. 불길하다…'라는 헤드 카피가 더해져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킨다.

이 드라마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예술재단 기획실장 오혜원과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의 음악적 교감과 처절한 사랑을 그린 멜로물로, 다음달 17일에 첫 방송된다. /탁진현기자 tak0427@

2D 관람료 1000원↑ 3D 2000원↓

CGV 가격 체계 세분화

멀티플렉스 체인 CGV가 관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영화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2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CGV는 기존 조조와 일반으로만 나뉘었던 시간대 구분을 각 지점의 특성에 맞게 조조(오전 10시 전), 주간(오전 10시~오후 4시), 프라임(오후 4~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시간대에 따라 2D 영화는 최대 1000원 인상한 5000~1만원, 3D 영화는 최대 2000원 인하한 8000~1만2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예매 고객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특별 할인요금제도 도입한다. 이번 가격 정책과는 별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CGV 컬처 데이'는 기존 가격으로 진행한다. 전국 지점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8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유순호기자

올해의 최종작가 정지현 '데멀리션'전

KT&G 상상마당이 다음달 1~31일 제6회 KT&G 스코프 올해의 최종작가 정지현의 '데멀리션 사이트'(사진)전을 개최한다.

정 작가는 지난해 6월 KT&G 스코프 올해의 작가로 선발돼 약 6개월간 멘토링을 비롯한 지원을 받아 작업해왔고, 지난달 진행된 공개 포트폴리오 리뷰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올해의 최종 작가로 선발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작가가 직접 인천의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에 들어가 일정 표시를 남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표시가 해체되는 과정을 담았다. 작가는 생성되거나 소멸 중인 임시적 공간으로서 철거 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도시 환경을 돌아본다.

KT&G 스코프는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젊은 사진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KT&G 상상마당의 대표적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전시는 서교동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유순호기자 suno@

한양도성을 깔고 앉았던 조선신궁

권기봉의 **도시산책** <69>

지난해 말 서울 남산식물원 터에서 한양도성 유구(사진)가 발견됐다. 총 연장 18.6㎞ 가운데 현재 12.3㎞만 남아있는 한양도성에 94.1m의 새 구간이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일제 때 땅속에 파묻힌 뒤 근 10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거라 의미가 남달랐다.

앞서 일제는 이 땅에 총칼만 갖고 온 게 아니었다. 애당초 민간 신앙이었던 '신도'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교로 재정립한 '국가 신도'도 이식했다. 국가 신도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정신적 지배도구 그 자체였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난 1925년 서울 남산 중턱 사이에, 그것도 한양도성 성벽을 깔고 지은 '조선신궁'이었다. 일본 천황가의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유신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이끈 '메이지천황' 등을 신으로 모셨고, 비슷한 시기에 지은 조선총독부를 경복궁 중심축에서 5.6도 기울여 조선신궁을 마주보게 했을 정도로 위상이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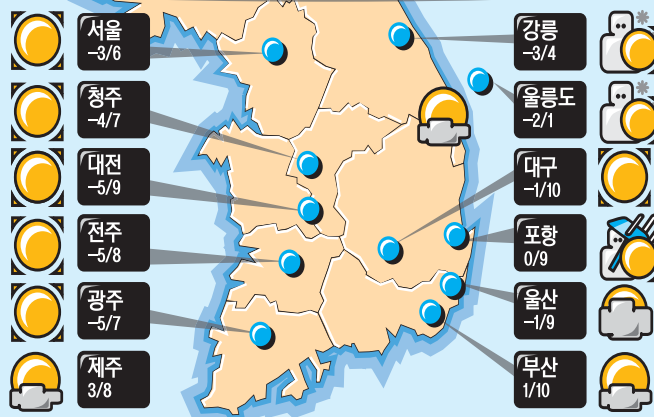
물론 지금은 조선신궁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돌계단 일부가 옆으로 옮겨져 이용되고 있고 백범광장이나 안중근의사기념관광장 등 조선신궁 당시에 조성된 넓은 터들이 형태로나마 남아있는 정도다. 해방 이튿날 일본인 제관들 스스로 신위를 불태우고 건물을 철거해버린 탓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드러난 성벽 주변을 단장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조선신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안내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굴 현장 주변을 걸으며 과연 한양도성 성벽이 왜 땅속에 묻히게 됐는지, 나아가 식민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버팀목으로서 이 현장을 재조명하는 방법은 없을지 상상해본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2/21 金 일출시각 07:15 일몰시각 18: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적절한 환기를 통해 집 안의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수분을 쉽게 빼앗겨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9			3			7	6	1
	8					4	9	
	3		7		2		1	
2								8
	1		5		6		7	
	9	3					4	
1	4	7			9			6
		8	6					

8		4		1	2			
5				4			1	6
		2					4	8
	8	9	4		3			
6								7
			8		9	3	2	
3	2					1		
9	1			5				3
			1	3		9		2

스도쿠 정답

7	6	1	9	4	5	8	2	3
9	5	4	3	2	8	7	6	1
3	8	2	1	6	7	4	9	5
8	3	5	7	9	2	6	1	4
2	7	6	4	1	3	9	5	8
4	1	9	5	8	6	3	7	2
6	9	3	8	5	1	2	4	7
1	4	7	2	3	9	5	8	6
5	2	8	6	7	4	1	3	9

8	6	4	7	1	2	5	3	9
5	9	7	3	4	8	2	1	6
1	3	2	6	9	5	7	4	8
2	8	9	4	7	3	6	5	1
6	4	3	5	2	1	8	9	7
7	5	1	8	6	9	3	2	4
3	2	6	9	8	4	1	7	5
9	1	8	2	5	7	4	6	3
4	7	5	1	3	6	9	8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집 팔아 부동산 투자해도 될지 몇배 이익 난다 해도 포기해야

쮸앤찡 남자 72년 11월 24일 양력 오전 4시32분

Q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부모님이 제주도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부모님 집이 빈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A 대지보조(大地普照:넓은 큰 땅을 햇빛이 비침) 해 뜻하지 않은 원조자를 만나며 암록(暗綠:복록)은 재물의 궁핍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으로 안락합니다. 부동산 흐름과 직장운도 좋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되 직장은 그대로 다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사후에는 가족들과 점점 인연이 멀어지게 됨도 암시됩니다. 사주상 비견(比肩:형제, 친구)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재가 있는데 이는 재물의 손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애나 우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집을 팔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동산에 투자하기만 하면 몇 곱절 이익이 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더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헤어진 여자에게 돈 꿔줬는데… 돌려받기 힘드니 미련 버려야

hynin 남자 57년 7월 2일 음력

Q 이혼한 후 혼자 살다 2년 전 만난 여자와 동거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 별거 중인데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녀 공히 일찍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를 여럿 만나게 되고 금전이 고르지 못한 인연을 만나 말년이 괴롭습니다. 일간(日干:생일을 나타냄) 신금(辛金)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나 첫인상이 차게 보이고 아집이 대단합니다. 갑오년인 올해 재관(財官)이 묶여있어 돈을 받지 못하며 2017년이 되면 재물운이 있는데 받는 돈이 아니라 버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에게 연연하다 보면 다투기만 할 것이니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는 것이 어떨지요. 기술자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효신살로 불화할 수 있으니 집 안에 도배라도 다시 해 분위기를 쇄신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21일 (음 1월 2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높은 곳이나 물가에 가지 마라. **60년생** 칼보다 말의 상처가 더 아프다. **72년생** 마음먹은 계획은 천천히 추진하라. **84년생** 한 가지에 매달려야 성과 좋다.

49년생 베풀면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 **61년생**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 **73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돼 즐겁다. **85년생** 남의 논쟁이 끼어들면 잘해야 본전.

50년생 혼자 하기 벅찬 일은 조언을 구하라. **62년생** 흔들리던 마음은 진정된다. **74년생** 걱정했던 일이 잘 풀린다. **86년생** 생고생은 하지만 지갑은 두툼해진다.

51년생 대세를 따라야 순탄하다. **63년생** 체면 때문에 허세 부리지 마라. **75년생** 투자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진다. **87년생** 연인과 사랑의 공식이 같아 즐겁다.

52년생 감언이설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64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76년생** 운전으로 인한 시비에 주의하라. **88년생** 게으르면 꿈은 점점 멀어진다.

53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65년생** 가능성이 적은 계획은 포기하라. **77년생** 돈이나 사람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다. **89년생** 소개팅 있으니 출근복 신경 써라.

42년생 아랫사람과 정면 대결 피하라. **54년생** 돈을 빌려주면 받기 어려워진다. **66년생** 문서는 함정 많으니 꼼꼼히 살펴라. **78년생** 계획 완벽하면 막힘이 없다.

43년생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판다. **55년생** 소망한 일은 이뤄지니 걱정하지 마라. **67년생** 어려움은 도움 요청하면 풀린다. **79년생** 술로 인한 구설수에 조심할 것.

44년생 의견이 많을 땐 무시해도 무방. **56년생** 문서 일에 이득이 생긴다. **68년생** 지병이 있는 사람은 몸 상태에 신경 써라. **80년생** 생각대로 일이 착착 풀린다.

45년생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57년생**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유쾌한 하루. **69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1년생** 뜻을 이루려면 편안한 것만 찾지 마라.

46년생 큰 거래가 성사돼 의욕 넘친다. **58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다. **70년생** 운기가 원만하니 움직여라. **82년생** 고민은 풀리고 희망은 보이기 시작한다.

47년생 매매가 성사된다. **59년생** 사람 소개하는 일은 보류할 것. **71년생**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타난다. **83년생** 실수를 내 탓으로 생각하면 편안하다.

심석희·이승훈, 토요일밤 金 부탁해

심, 쇼트트랙 1000m 출전 2관왕 '찜'…이, 빙속 팀추월서 명예회복 별러

'쇼트트랙 샛별' 심석희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대표 주자 이승훈이 22일 여자 쇼트트랙 1000m 준준결승과 21일 열리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꽃 같은 스퍼트로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피날레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 이틀 전인 22일은 사실상 한국 선수단이 마지막 금메달 도전에 나서는 날이다. 겨울올림픽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이라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목표 달성 여부도 이날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금메달 사냥은 쇼트트랙 전사들이 맡는다. 심석희(세화여고), 박승희(화성시청), 김아랑(전주제일고)이 이날 오전 1시44분부터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준결승에서 나서 또 한 번의 '금빛 질주'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표팀 맏언니 조해리(고양시청)와 함께 18일 치러진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09초49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계주 이전에 여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딴 심석희,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박승희는 각각 이번 대회 세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이번 대회 최다 메달리스트다.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은 이미 1000m 예선을 각 조 1위로 가볍게 통과하고 마지막 메달 사냥 채비를 마쳤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노메달 위기에 처한 남자 쇼트트랙의 자존심은 박세영(단국대)과 이한빈(성남시청)의 발끝에 달렸다. 박세영과 이한빈은 500m 준준결승에 올라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번 대회 처음이자 마지막 메달 획득을 위해 역주에 나선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이승훈(대한항공)은 후배 김철민, 주형준(한국체대)과 함께 팀추월 예선경기에 나선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1만m 금메달 및 5000m 은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이번 대회 같은 종목에서는 각각 4위, 12위에 그쳐 우리나라가 첫 메달을 노리는 팀추월에서 명예회복을 벼른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소치 올림픽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주며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비에른달렌 최다메달 기록

이변이 많았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진기록이 나왔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영웅'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40·사진)이 동계올림픽에서만 메달 13개를 획득해 이 부문에서 새 기록을 썼다.

비에른달렌은 20일 러시아 소치 산악 클러스터의 라우라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혼성 계주에 노르웨이 대표로 출전해 1시간09분17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8일 열린 남자 스프린트 10㎞에서도 우승, 대회 2관왕에 오른 비에른달렌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총 금 8, 은 4,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종전 기록은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였던 비외른 댈리의 12개였다. /양성운기자

국가별 메달 순위 <20일 오후 10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0	4	7
2	독일	8	4	4
3	미국	7	5	11
4	러시아	6	9	7
5	네덜란드	6	7	9
6	스위스	6	3	1
7	캐나다	5	9	4
8	벨라루스	5	0	1
9	프랑스	4	3	7
10	폴란드	4	0	0
16	**대한민국**	2	1	1

여자 봅슬레이 첫 도전서 탈꼴찌 20일 새벽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여자 2인승에 출전한 김선옥·신미화 선수가 3차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4차 레이스에서 1분00초26을 기록하고 4차 레이스 합계 4분00초81을 기록해 19개 팀 중 18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AFP 연합뉴스

美 봅슬레이 윌리엄스 동·하계 모두 메달

미국 봅슬레이 국가대표 로린 윌리엄스(31)가 동·하계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는 진기록을 세웠다.

윌리엄스는 20일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여자 2인승에서 엘레나 마이어스와 한 조로 출전해 4차 레이스까지 합계 3분50초71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따낸 카일리 험프리스·헤더 모이제(캐나다) 조에 불과 0.1초 뒤졌다.

앞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육상 여자 100m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동·하계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따낸 여자 선수는 크리스타 루딩(독일), 클라라 휴스(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다. /양성운기자

러 귀화 와일드 '안현수 닮은 꼴'

소치 이모저모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 스노보드 선수가 빅토르 안(한국 이름 안현수)과 '닮은꼴 인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출신으로 러시아에 귀화한 빅 와일드(사진)는 19일(현지시간) 남자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메달 획득 후 "내가 계속 미국에서 스노보드를 탔다면 이미 은퇴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됐을 것이다. 러시아는 그런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윈 조국을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주 출신 와일드는 2011년 러시아의 스노보드 선수인 알레나 자바르지나와 결혼하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쇼트트랙 선수인 빅토르 안 역시 빙상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에 휘말린 끝에 2011년 러시아로 귀화했고, 이번 대회에 참가해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연아 열풍…소치 홈피 메인 장식

○…바야흐로 소치에 김연아 열풍이 불고 있다.

20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1위를 기록하며 '피겨 여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자 전세계가 '연아 앓이'에 빠졌다.

이날 소치올림픽 홈페이지에는 김연아가 메인으로 등장했다.

또 대회에 참여한 피겨 선수들 사이에서는 인증샷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스타 그레이시 골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연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일으키더니 에드먼즈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연아와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려놨다. /탁진현·양성운기자 tak0427@

sochi.ru 2014 소치 하이라이트 21~22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날짜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각	한국 선수
21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22시 30분	이승훈·김철민·주형준
		여자 팀추월	23시 23분	김보름·노선영·양신영
	쇼트트랙	남자 500m	22일 1시 30분	박세영·이한빈
		여자 1000m	22일 1시 44분	심석희·박승희·김아랑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21시 45분	강영서·김소희
22일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 B	22일 3시 18분	김윤재·박세영·신다운·이한빈·이호석

안현수 "이젠 다관왕이다"

내일 500m·5000m 계주 출격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의 안현수 선수가 18일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빅토르 안' 안현수(29·러시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다관왕의 시동을 걸었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해 1000m에서 러시아에 쇼트트랙 첫 금메달을 안긴 안현수는 500m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안현수는 22일 오전 1시30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에 나선다.

한국 국가대표 당시 500m는 안현수의 주 종목이 아니었다. 3관왕을 달성했던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서도 동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이후 단거리 훈련에 주력했다. 무릎 부상 후유증 때문이다. 안현수는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후 열린 인터뷰에서 "큰 부상을 해서 무릎 통증이 아직도 있다. (러시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안에서 맞춤형 훈련을 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단거리 위주로 훈련했다. 한국에서보다 500m가 더 잘됐다"고 말했다.

맞춤형 훈련을 통해 안현수는 한층 원숙해진 스케이팅 실력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현수는 올 시즌 월드컵 500m에서 두 차례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다. 안현수는 500m 세계 랭킹 1위다. 여기에 1000m 금메달로 자신감과 여유까지 더해졌다.

안현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쇼트트랙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선수가 된다. 현재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안현수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중국 여자 에이스 왕멍(29) 뿐이다. 왕멍은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안현수는 지금까지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안현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번 대회 다관왕과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 선수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다.

한편 안현수는 이날 오전 3시 30분에 열리는 남자 계주 5000m 결승에도 출전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분 남기고 역전골 소치올림픽 아이스하키 토너먼트 준준결승전에서 핀란드 베테랑 선수 티무 세라느가 러시아와 1-1로 맞선 1피리어드 종료 2분여를 남겨두고 역전골을 쏘아 올렸다. 대회 주최국 러시아는 핀란드에 1-3으로 패해 대회 메달권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아이스하키 강국' 미국·캐나다 22일 준결승 격돌

남자 아이스하키 북미 라이벌인 미국과 캐나다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북미아이스하키(NHL)의 간판스타들이 포진한 미국과 캐나다는 22일 오전 2시 볼쇼이 아이스돔에서 준결승을 벌인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A조와 B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준결승에서 2010년 밴쿠버올림픽 결승전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시선이 집중돼왔다. 당시 결승전에서 미국은 연장 접전을 벌이다 홈팀 캐나다의 시드니 크로스비(피츠버그 펭귄스)에게 뼈아픈 골든골을 내줘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캐나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미국이 지난 대회 패배를 설욕할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지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지만 '디펜딩 챔피언' 캐나다는 라트비아와의 경기에서 빈곤한 득점력에 허덕인 데다 주전 센터 존 터배리스(뉴욕 아일런더스)가 크게 다쳐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근심만 커졌다.

한편 21일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스웨덴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 결승에서 핀란드와 맞붙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밥상 차리는 추신수·앤드루스

텍사스 테이블세터 호흡…팀 타선 윤곽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가 20일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팀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강호 텍사스 레인저스가 다국적 타선을 앞세워 월드시리즈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추신수(32)와 프린스 필더(30) 두 왼손 강타자를 영입해 타선을 보강한 텍사스가 핵 타선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론 워싱턴 텍사스 감독은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에 앞서 "타선의 윤곽을 정했다"고 라인업의 순서를 공개했다.

톱타자는 호타준족의 출루기계 추신수가 맡는다. 작전 수행능력이 좋은 엘비스 앤드루스(베네수엘라·유격수)가 2번을 쳐 추신수와 테이블 세터로 호흡을 맞춘다. 필더(1루수)-애드리안 벨트레(도미니카공화국·3루수)-알렉스 리오스(우익수)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은 파괴력에서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6번 이하 하위 타순은 미치 모어랜드(지명 타자)-조바니 소토(푸에르토리코·포수)-주릭슨 프로파(네덜란드령 쿠마소·2루수)-레오니스 마르틴(쿠바·중견수)이 맡는다.

특히 추신수부터 마르틴까지 좌타자와 우타자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어느 투수가 나오건 막힘 없이 공략하겠다는 워싱턴 감독의 의지로 보인다.

워싱턴 감독은 "하위 타순은 약간 변할 수 있으나 이 순서가 축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류현진 다저스 청백전 등판…실전감각 올린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사진)이 24일 스프링캠프 청백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은 20일 다저스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저스는 24~25일 청백전을 갖기로 했으며 류현진은 24일에 등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저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캐멀백랜치 스타디움에서 스프링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4~25일에 팀 자체 청백전을 갖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류현진은 맷 매길을 비롯해 크리스 페레즈, 브라이언 윌슨, J.P. 하월이 마무리 켄리 얀센 등 필승 계투조와 함께 24일 마운드에 오른다. 25일에는 스티븐 파이프, 댄 하렌, 크리스 리드, 파코 로드리게스, 제이미 라이트가 등판할 예정이다. 다저스의 '원투펀치'인 클레이턴 커쇼와 잭 그레인키는 청백전에 등판하지 않는다.

한편 다저스는 27일 애리조나와의 일전을 시작으로 시범경기에 돌입한다. /양성운기자

뮌헨, 아스널 꺾고 챔스리그 2연패 순항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 FC를 꺾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뮌헨은 20일 오전 4시45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시즌 챔피언스리그 아스널과의 16강 1차전에서 토니 크로스와 토마스 뮐러의 연속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원정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한 뮌헨은 8강 진출이 유력해졌다.

후반 9분 토니 크로스가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선제골을 뽑았고 후반 42분 토마스 뮐러가 헤딩 추가골을 터뜨렸다. 아스널은 전반 37분 골키퍼 보이치에흐 슈체스니가 뮌헨 공격수 아르연 로번을 막다가 레드카드를 받아 수적 열세로 고전했다.

아스널과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는 내달 12일 독일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에레나서 열린다.

한편 AT 마드리드(스페인)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린 대회 16강 1차전서 후반 막판 터진 디에고 코스타의 결승골에 힘입어 AC 밀란(이탈리아)에 1-0으로 승리했다. AT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로 인해 내달 12일 열리는 2차전 홈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8강에 오르게 된다. /양성운기자

프로농구 전적 (20일)

팀					
삼성	20	13	12	16	**61**
모비스	18	14	18	20	**70**
전자랜드	18	16	11	23	**68**
동부	21	9	23	17	**70**
KDB생명	23	17	14	11	**65**
신한은행	14	6	33	15	**68**

프로배구 전적 (20일)

홈			원정
GS칼텍스	3	0	흥국생명
우리카드	1	3	대한항공